

통일을 말하다

먼저 온 통일

희망을 꿈꾸다

소식을 전하다

즐거움을 만나다

공감을 나누다



박근혜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에서 기초연설을 비롯해 유엔안보리 정상급회의, 유엔기후정상회의, 유엔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고위급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글로벌 다자외교 주요무대인 유엔에서 성공적 데뷔를 하였다.



남북간 '작은 통로' 만들어내는 인천아시아게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십 민주평통 & 경찰



'나눔은 곧 곱하기' 북한이탈주민 돕는 개그맨 이승환



"거주국가와 전문분야는 달라도 통일 열망은 한 마음"

통일을 말하다

① ② ③ ④

포커스①

박근혜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의미

먼저 온 통일

①

경찰청 MOU 우수사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십 민주평통 & 경찰



통일시대



자문회의소개



지난호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 기초연설을 비롯해 유엔안보리 정상급회의, 유엔기후정상회의, 유엔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고위급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글로벌 다자외교 주요무대인 유엔에서 ...

+ 더보기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더보기

희망을 꿈꾸다

① ② ③

또 다른 시선

"한국이 좋아, 한국사람이 됐어요"



소식을 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해외지역회의

민주평통, 제16기 제3차
해외지역회의 개최



웹툰

통일한반도에서 '10년째 연애 중'



동영상

민주평통, 제16기 제3차
해외지역회의 개최



다른 나라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외국인', 170cm의 늘씬한 키에 동서양의 매력이 공존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미녀 방송인 구갈 투르수노바 (29)는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외국인'이 맞다 ...

+ 더보기

즐거움을 만나다

① ②

통일레시피

가을 입맛 자극하는 '감경단'



주홍빛의 감경단은 썩는 맛이 부드러워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방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다. 감은 예부터 음주 뒤 숙취에 특효가 있고 ...

+ 더보기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통일부, 통일 준비위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

+ 더보기

공감을 나누다

① ② ③

'남한사회 적응 TIP!' 당선작

어려운 남한생활? 대학생 활동으로 풀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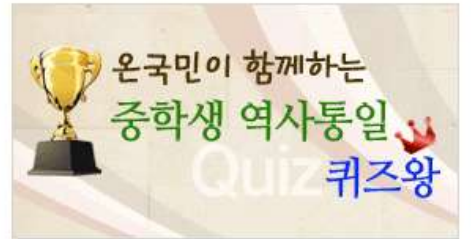


안녕? 나는 남한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야. 오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북한 친구들에게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려고 해. 남한 사회에 들어와 ...

+ 더보기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당첨자 >



박근혜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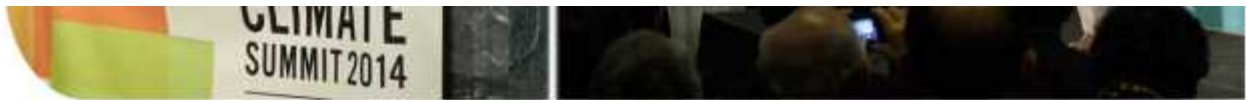
조윤영 교수(중앙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유엔안보리 정상급회의, 유엔기후정상회의, 유엔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글로벌 다자외교 주요무대인 유엔에서 성공적 데뷔를 하였다. 이는 취임 후 유엔에서의 첫 공식외교활동이었으며, 또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급부상한 테러문제해결에 동참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유엔외교를 통해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전세계 인권 증진 및 교육,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외국인테러전투원 대응 등 글로벌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국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국가위상을 제고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역량대응을 높이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기여를 최대 1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을 신성장 동력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창조경제비전도 제시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 기후재정 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GGGI) 의장 교대행사 개막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번 유엔 외교의 스포트라이트는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은 20분에 걸친 연설에서 평화통일, 북핵과 동북아평화, 북한 인권,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한 목소리로 촉구하였으며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풀 전제조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 한반도문제와 이를 둘러싼 동북아 주요이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적절한 어조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각국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각국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 남북한 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DMZ가 생명과 평화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유엔이 한국에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대상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연설을 통해서 북핵문제와 통일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유엔연설을 통해서 북핵문제와 통일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구축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엔 기조연설과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구상 등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였으며 한미·한중 정상 회담을 통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고 대결의 장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해본다.

<사진제공 : 청와대>



남북간 '작은 통로' 만들어내는 인천아시안게임

성기영 연구위원(통일연구원)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대한 막을 올렸다. 10월 4일까지 계속되는 아시안게임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한국팀의 금메달 숫자도, 신기록 여부도 아니다. 바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대규모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14개 종목 150명의 선수를 포함해 모두 352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는 실로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대표단 참가 방식과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실무 협의는 반나절 만에 결렬되었고 북한은 '회담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인천아시안게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문서협의 방식을 제안하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해 후속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가까스로 북한 선수단 참가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이 당초 제안했던, 선수단과 응원단 포함 700명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참가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은 대폭 축소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응원단 참가 역시 무산되었다. 남측은 국제관례를 앞세웠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비난전과 신경전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사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해 가는 곳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북한의 여성응원단은 대회의 최대 흥행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 응원단 구성과 훈련과정의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적 선동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언론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빼어난 미모와 화려한 율동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들 응원단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오죽하면 집권여당의 대표조차 응원단 무산을 놓고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나섰을까. 이쯤 되면 북한의 여성응원단이 남북간에 공통의 화젯거리를 만들어 심정적 거리를 좁히고 긴장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응원단 참가가 무산되고 이에 따라 대회 흥행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고 해서 북한의 인천아시아 게임 참가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지난 5~6년간 꼭 막혀왔던 남북관계가 다소 해빙 조짐을 보이는 시기에 대규모 스포츠 교류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간에 작은 통로를 열어가는 대단히 바람직한 소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대결구도처럼 일조일석에 극복하기 어려운 분단의 질곡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남북간 동질성을 확인하고 신뢰의 초석을 쌓는 일이야말로 남북간에 작은 통로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가 차지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드레스덴 구상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 주민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8.15 경축사에서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른바 '작은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과 북이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간에 작은 통로를 열어가는 대단히 바람직한 소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대결구도처럼 일조일석에 극복하기 어려운 분단의 질곡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남북간 동질성을 확인하고 신뢰의 초석을 쌓는 일이야말로 남북간에 작은 통로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가 차지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2.5그램의 탁구공이 '핑퐁외교'를 통해 미·중관계를 정상화시키며 거대한 냉전의 장벽을 허물어뜨렸던 장면을 기억한다. 또 우리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한 조국의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전 중단을 호소했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축구영웅 디디에 드로그바의 눈물어린 호소가 휴전으로 이어졌던 기적같은 사건도 기억한다.

스포츠의 기적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세계 최강 중국을 꺾는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였다. 또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남북한은 물론 세계인으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남북간에 열리는 작은 통로는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라는 통일정책 방법론을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는 통일친화적 사회 건설과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긴 여정으로 나아가는 데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남한 또는 북한에서 열리는 대형 스포츠 행사에 상대방이 참석해 교류의 기회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역도 선수권대회에 참석한 한국 선수단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워 입장한 것도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처럼 남북간에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측 사이를 연결하는 작은 통로는 이에 정비례하여 늘어나게 될 것이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 북한입촌식에서 이에리사 선수촌장(앞줄 왼쪽 여섯번 째)과 북한 선수단장 김병식 체육성 부상(앞줄 왼쪽 일곱번 째)을 비롯한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북간에 열리는 작은 통로는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라는 통일정책 방법론을 실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는 통일친화적 사회 건설과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긴 여정으로 나아가는 데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가 스포츠를 통해 개방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 영국의 유력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평가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가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제공 : 청와대, 연합뉴스>

통일한반도에서 '10년째 연애 중'

이택중



10년 후

어휴~.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이뤘으니 이제는
꿈에서도 머억~지이~요오~.



힘든데 자전거 타고
어디 가는 거야? 배 꺼지게.



밥 먹으러,
맛집 찾아가는 거야.



아니야.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이야.
미술랭가이드 별 5개에 빛나는
통일비빔밥집!

어머, 어머!



북한 청정지역에서 자란 각종
나물에 남한의 최고급 소고기,
계란 없어서 만든 통일비빔밥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웰빙
음식이야!

그래? 좋아!
그럼 나는 비빔밥 4종 풀코스!
해주비빔밥, 평양비빔밥!
호로록~ 호로록~
전주비빔밥, 안동비빔밥!
호로록~ 호로록~



남북한 최고의 특산물이 만나 더 특별해진 비빔밥!
통합의 상징으로 요즘엔 외국인에게 더 잘 알려진 K-Food!
통일비빔밥 먹으러 가자~.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북한 학생들의 가을학기 풍경

김동식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왔다. 어른들에게 가을이 여행의 계절이라면, 아이들에게 가을은 소풍과 운동회의 계절이다. 한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아이들은 가을이 되면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한다. 그리고 북한 아이들의 소풍이나 운동회도 우리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북한 아이들의 가을 소풍과 운동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소풍과 '원족'

북한에서는 '소풍'이라는 용어 대신 옛날부터 쓰던 '원족(遠足)'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소풍은 '원족'이라는 말 그대로 먼 곳까지 걸어가서 놀고 오는 것을 의미한다. 평양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잠깐이라도 이동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걸어서 다녀오는 것이 원족이다. 도시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유원지로 가고, 시골의 아이들은 산이나 강기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들은 당일 아침 학교에 모여 반별로 줄을 지어서 소풍장소로 이동한다. 소풍 장소에 도착하면 대체로 점심식사 시간이 된다. 그러면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한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북한 아이들도 소풍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이 도시락이다.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반장 등 몇몇 아이들은 담임선생님 도시락도 싸간다. 어떤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을 위해 술과 안주까지 준비해오는 경우도 있다. 담임선생님의 권한이 막강한 북한에서 소풍이나 운동회는 담임선생님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있는 보물찾기와 손수건 돌리기

북한에서 아이들이 소풍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인기 있고 기대하는 것이 보물찾기 놀이다. 먼저 선생님들이 노트나 연필 등 문구용품, 축구공이나 탁구라켓 같은 스포츠용품 등을 메모한 쪽지를 당일 아침이나 전날에 미리 가서 바위틈이나 나무껍질 등에 숨겨놓은 후에,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을 찾아오게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모이게 한 다음 아이들이 찾아온 쪽지에 적혀있는 대로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손수건 돌리기'라는 술래잡기 놀이도 많이 하는데, 방법은 이렇다. 먼저 선생님을 포함해 30~40여 명이 원을 지어 둘러앉은 다음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술래로 선정된 아이는 아이들의 등 뒤로 손수건을 가지고 뛰어서 돈다. 그러다가 앉아서 노래 부르는 다른 아이의 뒤에 손수건을 몰래 놓고 한 바퀴를 뛰어 돌아와 손수건이 등 뒤에 놓여있는지 모르고 노래 부르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친다. 그러면 지목된 아이는 일어나 노래를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알아맞히기(퀴즈) 경연이나 팔씨름이나 닭싸움과 같은 간단한 운동, 그리고 노래·춤 등 장기자랑도 빠질 수 없는 가을소풍의 단골메뉴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운동회는 또 하나의 사상교육 현장

운동회 역시 북한 학생들의 가을 행사 중 하나이다. 북한 학교에서도 운동회 때 전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우리와 같은데, 팀 명칭을 정하는 것만은 다르다. 우리는 보통 '청팀'과 '백팀' 등으로 팀 명칭을 정하는데, 북한에서는 '백두산'과 '왕재산' 또는 '암록강'과 '두만강' 등으로 팀 명칭을 붙인다. 운동회 때 팀 명칭을 붙이는 것부터 김 부자 혁명역사와 연결시켜 이상화교육에 활용하는 셈이다.



북한 학생들이 운동회 때 하는 종목은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 100m 달리기와 계주 등 각종 육상종목, 축구·배구·농구 등 구기 종목, 줄 당기기(줄다리기), 두 사람이 다리 묶고 달리기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북한에는 족구가 없다. 그밖에 공 4~5개 안고 달리기, 어린 아이들이 5m정도 높이에 매달린 바구니에 오재미(천으로 된 아이들 주먹크기 만한 주머니에 모래를 넣고 꿰맨 것) 많이 넣기 등도 한다. '미국x 때리기(천으로 눈을 가린 상태에서 막대기로 10~20m 정도 앞에 있는 허수아비 형태의 미군 모형을 때리고 돌아오는 릴레이 게임)'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북한 아이들의 놀이 종목 가운데 하나다. 놀이를 통해서도 반미적개심을 고취시키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당국이 운동회까지 사상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북한 아이들의 기본적인 가을놀이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왕재산 : 북한 함북에 위치한 산으로 70년대부터 혁명 전적지로 개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통일맞이 하나 다섯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3월 21일 민주평통과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민주평통 각 지역협의회와 일선 경찰서에서도 MOU를 속속 체결했다. 양 기관간 활발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의정부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MOU 이후 협력활동

경기 의정부시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의정부경찰서와 MOU(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방선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7월어야 이를 체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4월 이후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있었고, 6월 27일에는 경찰의 추천을 받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학생과 함께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난타공연을 관람했다. 또한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임진각 헤이리 일대 탐방' 등의 행사도 경찰서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 민주평통 경기 의정부협의회와 의정부경찰서의 업무협약식

▼ 한꿈학교와 함께하는 소통의 문화 공감



의정부협의회 진숙 행정실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만 신변노출 문제로 참여가 저조했는데, 경찰서에서 안내를 잘해준 덕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협의회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 의정부경찰서 보안계 상부식 계장]

“지난 2월 보안계에 부임해서 업무를 해보니 생각보다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 생활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렵게 남한에 오신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드릴 지 고민을 하던 차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 탈북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마침 민주평통의정부협의회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의정부는 공장이나 기업단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이다보니 일자리가 적어 많은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외지에 나가있어요. 그래도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정부시에 정착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서울 내 북한이탈주민 최대 거주지 양천구를 '최고 거주지'로!

MOU 이후 협력활동

양천구에는 1,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 내 최대 거주지라고 할 수 있다. 민주평통 양천구협의회와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25일 MOU를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양천구협의회 주관으로 증추절 합동차례(9.5)를 지내거나 무료진료(9.8~10)를 실시할 때 경찰에서 직접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동행해서 안전을 책임져 준 덕분에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 민주평통 양천구협의회와 양천경찰서의 업무협약식



▲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무료진료

경찰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 양천경찰서 보안과 박종근 경위]

“9월 8일부터 3일간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평통과 함께 의료지원사업을 했는데 전 직원이 1,200~1,300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무료진료를 받으러 오셨고, 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검진을 받을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는 따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변보호 차원 이외의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평통과 협약을 맺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쁩니다. MOU를 맺기 전에는 민주평통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지만, 북한이탈주민 추천, 안내, 신변 안전을 위한 현장 인솔 등 경찰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함께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과 취업지원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도왔으면 합니다. 지금도 양천구협의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주민들이 있다보니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장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문제도 무엇보다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2014 북한이탈주민 중추절 합동차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자 합니다!

MOU 이후 협력활동

민주평통 대구수성구협의회와 수성경찰서는 4월 2일 MOU를 체결한 이후 북한이탈주민합동결혼식과 어깨동무 문화체험교실, 송편빚기체험, 어르신보약제공 사업 등을 함께 했다.

특히 지난 7월 8일 북한이탈주민결혼식에는 경찰의 추천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을 수 있었고, 지역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와 수성경찰서의 업무협약식



▲ 북한이탈주민합동결혼식 TBC 대구방송 보도

경찰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구 수성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신재홍 계장

“북한이탈주민합동결혼식이라는 행사가 '생색내기'용이라는 편견을 받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랑신부의 지인들에게는 반드시 식사를 제공토록 했고 신랑 양복과 신부 한복, 신혼여행지 선정까지 민주평통과 많은 협의를 통해 진정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행사 당일 방송국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고 지역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지역주민의 손으로 보람있는 일을 치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 보약을 지어드릴 때도 70대 이상 연장자 순으로 단순하게 선정하기 보다는 건강상 꼭 필요하신 분을 찾아 보약을 지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수성구협의회
어르신보약제공사업

민주평통에서 어렵고 힘들게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저는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업의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저희 관할경찰서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기자회>

Mini Interview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계 이인수 경장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키다리아저씨'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이번 MOU 우수사례 발굴과 관련해 도움말을 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이인수 경장과 미니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인수 경장은 관할지역 경찰서들을 잘 지원해서 민주평통과 경찰서간 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키다리아저씨'같은, 따뜻한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한다.

Q. 민주평통-경찰서 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업에 대해?

민주평통은 경찰청과의 정착지원 업무협약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앞으로 전국 각 경찰서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 기반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아이디어가 있다면?

평소 직장인밴드를 하는 등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직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이 분들을 위한 문화제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행정상의 지원제도가나 법률상식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책자를 제작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경기2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산하 경찰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갈 것입니다.

Q. 지원업무 추진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단말기 지급, 복스타트 운동 추진, 외국인학교와 연계한 탈북청소년 영어교습, 안보견학, 문화체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보건소와 협력한 출장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린 세 자녀를 홀몸으로 돌보고 있던 탈북여성분을 도운 일입니다.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지만 포장박스 접기 등의 부업을 통해 어렵게 아이들을 부양하는 사연을 듣고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도와드렸는데, 그 분이 경찰서로 찾아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눔은 곱 곱하기’

북한이탈주민 돕는 개그맨 이승환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갈갈이 삼형제’의 ‘느끼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승환 씨. 방송활동을 접고 전국 26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진 외식프랜차이즈 CEO가 되면서 시작한 건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운동이다. 8년여동안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온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다양한 기부프로그램을 실천해 가고 있었다.

매달 한 번 1만원 씩 기부하는 ‘희망밥상’

이승환 씨는 지난해 말 ‘희망셰프’ 토니오와 함께 ‘아빠가 차려주는 만 원의 희망밥상(이하 희망밥상)’을 출간했다. 이 책은 희망을 찾아가는 여덟 가족(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보트피플, 암환자, 장애인 가족 등)의 따뜻한 밥상이야기와 함께 ‘냉장고를 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30가지의 요리 레시피가 함께 들어있다. 한 달에 한 번만 외식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그 절약된 돈 중 1만 원을 기부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자는 취지에서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의 인세 또한 전액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책에서 소개된 북한이탈주민 사례는 이경민·김주희 씨 부부다. 이경민 씨는 열두 살 때 처음 탈북을 시도한 뒤 중국 공안에게 잡혀 복송됐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재탈북을 시도하다 마침내 두만강을 건너 탈북에 성공했지만, 6~7년 동안 타국을 전전하다 2009년 한국에 왔다.

“이경민 씨에게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탈북을 결심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에 맞아 죽는 건 미래고, 배고픈 건 현실이라며, 저기만 넘어가면 배 불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들 부부의 음식 에피소드로는 ‘속도전 떡’이 나온다. 속도전 떡은 북한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갠 뒤 반죽해서 먹는 떡인데, 1분 안에 만들 수 있어서 속도전 떡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북한에서 하도 맛있게 먹어서 나중에 그 떡을 한국에서도 먹어봤대요. 맛이 어땠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경민 씨는 지금 다니는 대학교를 빨리 졸업한 뒤 직장에 취직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와보니 좋더라’는 입소문이 통일의 문을 열어줄 것

이승환 씨는 8년여 동안 대한적십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인 ‘사랑을 담은 사람들(사담사)’ 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도 기회만 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취업시켜 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양성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남한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요. 나중에 이분들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국회의원 등이 배출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이나 위상도 훨씬 높아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직업교육을 더 강화해서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승환 씨는 통일을 프랜차이즈에 비유했다. 프랜차이즈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입소문’인 것처럼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소문’이라는 것.

“외식업계에서는 ‘먹어보니 맛있더라’는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도 ‘남한에 와 보니 좋더라, 노력하면 얻어지더라’와 같은 입소문이 돌아야 해요. 요즘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과 직접 연락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잘 내리면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북한에 흘러들어가게 돼있어요.”

다양한 기부프로그램 구상하는 ‘아이디어 뱅크’

개그맨들은 한 두 개의 코너를 진행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친다. 이승환 씨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웃음을 주는 일이 아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서 6년간 지속해온 ‘다문화가족 외가 방문 프로젝트’이다. 첫 회 세 가족 열 명으로 시작했는데, 규모가 점점 커져 지난해는 12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이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엄마는 한국어에 서투르다보니 엄마를 ‘바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외가 방문 프로젝트였어요. 외갓집에 가면 엄마가 똑똑해지고 활달해져요. 엄마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아빠가 타기도 하고, 삼촌이나 외조부모가 다 같이 모여 엄마를 환영해주면 ‘아, 우리 엄마도 사랑받고 자랐구나’하고 느끼면서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현재 쇼핑몰이나 카카오스토리(이하 카스) 등을 이

용한 기부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쇼핑몰(www.희망밥상.com)의 경우, 이른바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 의미 있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건강한 식재료를 판매하고 판매액의 10%를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얼마 전 ‘카스 친구’ 10만 명을 달성한 이승환 씨는 ‘카스 친구’들에게 공언한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10만 명 중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자영업 회원의 이야기를 제 카스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매일 10만 명이 제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그 것 자체가 마케팅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단, 땀 흘려 가꾼 농수산물이나 장인정신으로 만든 가방과 같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분만을 소개하려고요. 제가 이 분들을 위한 무료 플랫폼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탈북청년들의 후배 돕기’처럼 나눔은 나눔을 낳는다!

이승환 씨가 나눔의 수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가 아니다.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 다음에는 나도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이다. 이런 마음이 선순환돼서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더 커져가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것.

“얼마 전, 후원을 통해 대학교공부를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졸업한 탈북청년이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탈북 후배들을 후원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사례를 들을 때마다 보람이 느껴지고 희망 또한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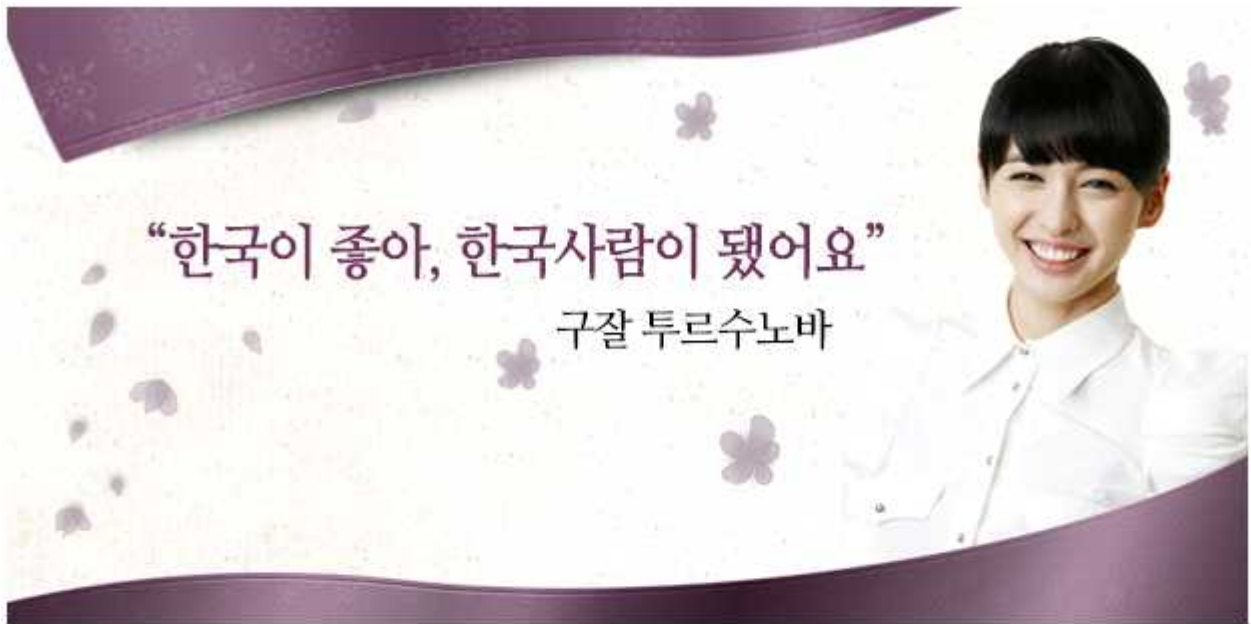
기부활동을 하면서 또 하나 얻은 수확은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이다. 지난해 연말 이승환 씨는 흥대에서 ‘72시간 라이브 모금 방송’을 진행해 3일 만에 14억6천만 원을 모았다. 잠도 안자고 음식도 먹지 않고 72시간동안 유리 상자 안에서 모금 생방송을 한 것.



“배고픈 건 참을 만 한데 자고 싶을 때 잠을 잘 수 없다는 건 정말 괴롭더라고요. 방송이 끝나니까 감정이 폭발쳐올랐는데, 그때 유리 상자밖에 있던 8살 큰 아들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아빠 최고라고, 최고로 존경한다고 말해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승환 씨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부를 축적해 재산을 남기기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결국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카스친구들이나 팬클럽 회원들에게도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그는 “결국 저는 연예인”이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행동을 칭찬해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했다.

<글. 기자회견 / 사진. 스킵버스엔터테인먼트>



다른 나라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외국인'. 170cm의 늘씬한 키에 동서양의 매력이 공존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미녀 방송인 구잘 투르수노바(29)는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외국인'이 맞다. 하지만 한국생활 10년 차, 한국말을 못하는 척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녀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외국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알고 보니 이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한국이 좋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닌 한국 왔어요!

KBS 인기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우즈벡의 김태희'란 애칭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구잘은 이후 '황금물고기', '옥탑방 왕세자' 등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연기자로서 변신을 꾀했으며, 최근에는 케이블드라마 '황금거탑'에 출연 중이다. 연세대학당과 서울대어학당을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재원인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그야말로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한국어에 능숙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처음 한국행을 택한 이유도 '친구 따라 강남' 온 격이었다.

“우즈벡에 고려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 아시죠? 당연히 고려인들을 만날 일도 많구요.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친한 고려인 언니 덕분이었어요. 언니가 한국 유학을 같이 가겠냐고 해서 덤씩 오게 된거죠. 벌써 10년 전인데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면 삼성이나 LG같은 회사만 생각했어요. 요새는 한류 열풍이 불어서 한국드라마도 많이 본다요 하더라고요.”



▲ 드라마 '황금거탑'에 출연 중인 구잘

한국 음식 OK, 한국 문화도 OK

그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겠단 생각에 시작된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하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통과의례처럼 거친다는 음식으로 인한 향수병을 앓은 적도 없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절대 못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된장찌개가 몇 달 만에 '맛있게' 느껴질 만큼 평범하게 한국 생활 자체를 즐겼단다. 문화 역시 한국과 우즈벡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 크게 이질감을 느낀 적은 없다고.

“한국과 닮은 점이 많아요. 우즈벡은 이슬람국가라 좀 많이 보수적인데 한국도 원래 보수적인 문화잖아요? 또 어른을 공경하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분도 같고요. 다만 한국처럼 ‘빨리빨리’란 건 없어요. 좀 느긋한 편이죠.”

사방이 ‘외국인’, 신기했던 ‘미수다’의 추억

그렇게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외국인 여성들이 패널로 나오는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에 출연을 권유 받으면서 평범한 유학생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방송에 출연할 때는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 있던 때라서 종종 내가 외국 사람이란 사실을 잊을 정도였어요. 주변에도 한국친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심지어 ‘미수다’에 출연했는데 다국적 출신의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마치 외국인들을 사이에 앉아 있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미수다’ 출연 당시 남성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평범한 얼굴’이라고 발언해 많은 여성들의 지탄 아닌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지금도 그 생각은 같단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예쁘게 봐준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라고. 덕분에 연기라는 새로운 일에도 도전해 볼 수 있었단다. 물론 외모만으로 성사 된 일은 아니다.

그녀의 스크린 데뷔작인 ‘결혼전야’의 홍지영 감독은 그녀를 ‘똑똑하고 욕심 많은 가능성 있는 배우’라고 칭찬했으며, 함께 출연한 배우 윤여정은 연기선생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니 예쁘기만 한 배우란 선입견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하게 굴지는 않겠단다. 그저 한국이 자신에게 준 많은 가능성과 기회에 고맙기만 하다고.

‘내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좋은사람들이 사는 고마운 나라 한국. 결국 그녀는 귀화를 결심하게 됐다. 단순히 방송활동만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었다. 어느새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사람이 되고 싶어졌던 것.

“한국에 오래 살아서 정도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한국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국사람들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엄마도 우리엄마, 집도 우리 집. 처음에는 ‘아니 우리 엄마를 왜 공유해야 하지?’란 생각을 했는데 차츰 그 단어가 좋아졌어요. 한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 우리나라사람이란 말을 쓰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 2012년 한국사람들도 헛갈려 한다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당연히 주민등록증도 생겼다. 다만 이국적인 외모로 인해 연기하는 배역은 외국인 역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한국말 잘 하는’ 외국인이라서 다행이라다.



한국어 못하는 ‘척’ 보다 잘하는 역할이 오히려 쉬워

“첫 영화를 촬영할 때는 한국어를 못하는 역할이라 그게 더 어려웠어요. 어색하게 보이지 않도록 못하는 척을 열심히 연기했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역할이라 어렵기도 해요. 하하”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케이블드라마 ‘황금거탑’에서 농촌에 시집 온 외국인 아내 역으로 출연 중인데 ‘한국어 능력시험 1등급에 사자성어까지 능통한’ 역할이라다. 한국어는 자신 있지만 한자와 사자성어나 속담만큼은 정말 난공불락이었다. 결국 ‘친구 찬스’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연습하고 있다고.

“제 대사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같은 속담이나 ‘비명횡사’같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결국 한국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국사람들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줘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농촌생활을 담은 드라마답게 주 촬영지 역시 농촌지역이라 한국의 농촌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촬영장을 오가는 시간마저 여행가는 것처럼 즐겁기만 하단다.



통일되면 북한도 ‘우리나라’, 여행가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한국사람’이 된 구질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평소에는 진지하게 고민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되는 거니까요. 또 통일이 된다면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보던 백두산이나 금강산을 꼭 가보고 싶어요.” 또 유독 한국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양이나 개성 지방에서 북한 토속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벌써부터 북한에는 어떤 음식과 문화가 있을지 궁금하단다.

조금하게 욕심내기보다 기회가 닿는 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싶다는 구절. 언젠가는 북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즐거운 한국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쭉~욱.

<글. 권혜리>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밥을 배불리 먹기 위해' 탈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토대'가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농부의 자녀는 농장으로, 광부의 자녀는 광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북한의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남한으로 떠나보낸다는 것. 이들은 비록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에 남한이라는 '낯선 환경'에 홀로 발을 디뎠지만, 어리고 젊은 만큼, 매우 유연한 사고방식과 빠른 적응력을 갖고 있었다. 19살에 고향을 떠나 남한에서 당당한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A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아, 남한에서는 옛이 욕이군요?

A씨는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학 입시준비를 하며 지인 소개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막상 채용은 했지만, 제과점 사장님은 얼굴도 새카맣고 일도 서투른 A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메뉴 이름이나 가격을 못 외우면 혼나니까 핸드폰에 메모해두면서 열심히 외우고, 남들 청소 안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청소하며 부지런히 일 했어요. 사장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일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다고요. 지금도 가끔 연락드리는데 꼭 한 번 놀러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도 있었다. 수능시험기간에 많이 눈에 띄는 옛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언니가 있기에 옛을 나눠준 것.

"언니 옛 먹어, 그랬죠. 알바 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 물었더니 '남한에서 그 말은 욕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아, 남한에서는 옛이 욕이구나.'"

남한에 온지 햇수로 3년째가 됐지만 A씨는 아직도 슈퍼에 갈 때 가끔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부터 한다. 필요한 물건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가기 위해서다.



“괜히 모르면 창피하니까요. 요전 날 H마트에 갔는데 사고 싶었던 물건의 이름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가스레인지인데, 집에 있는 큰 거 말고 작은 거요. 결국 손으로 가리키며 ‘저거 주세요’ 그랬죠.”

A씨가 말한 물건은 휴대용가스레인지였다. 휴대용부탄가스, 부탄가스레인지, 버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이 물건을 A씨는 그냥 편하게 ‘작은 가스레인지’라고 불러도 됐을 것 같다.

‘저 오빠 나한테 관심 있나?’ 공공 앓아요

A씨 아버지의 직업은 농부였다. A씨는 농부 자녀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북한의 제도가 싫었을 뿐, 결코 배가 고파 북한을 탈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남한에 온 지 1년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현재 유명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해 간호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지나치게 북한의 기아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굶주려서 뼈만 앙상한 아이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보여주는데, 모든 북한 주민이 그렇게 살지 않지는 않거든요. 청바지도 몰래 입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B씨는 ‘북한’하면 너무 가난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남한사람들이 ‘못 사는 곳에서 왔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 소개팅을 나가도 북한이 고향이라고 말하면 성공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A씨는 자신의 고향을 강원도라고 말하곤 했다. ‘강원도 어디?’라고 물으면 ‘철원’이라고 답하고, ‘철원 어디?’라고 물으면 ‘어릴 적에 이사와서 잘 몰라요’라고 답변했었다고. 물론 이제는 고향을 속이거나 둘러댈 필요가 없어졌다. 울여름 한 남성에게 고백을 받은 것. A씨는 ‘고백남’에게 “오빠 저는 그쪽(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라고 말했는데, 그 ‘고백남’은 “그게 어때서? 이제 여기 왔으니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게 어때서?”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북한 여자들은 아무래도 ‘순진한 것’ 같단다.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친절하잖아요. 잘 해주고 웃어주고 말 걸어줄 때마다 ‘저 오빠 나한테 관심 있나?’ 생각하면서 혼자 공공 앓곤 했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북한에서 온 제 친구들도 다 공감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아무 감정 없이 하는 행동인데 저희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요.”

칙칙칙칙 - 근처에 기차길이 있나요?

때로는 명랑하게, 때로는 격앙된 표정으로 남한 적응과정을 설명해주던 A씨가 갑자기 큰소리로 웃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다며 소개한 에피소드는 ‘기차소리’ 이야기였다.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됐을 때예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칙칙칙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처에 기차길이 있나? 분명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지요. 몇 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뒤에 불현듯 그 소리의 정체를 깨닫게 됐어요.”

A씨가 기차소리로 착각한 그건 무슨 소리였을까? 바로 밥가마(압력밥솥) 소리였다. 증기가 배출될 때마다 나는 치익치익 소리였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을 아프리카 오지마을처럼 문물 자체가 없는 곳으로 오해해서도 안된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요 근래에 남한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도 '식후 커피'를 마시고 비록 '중국제'이긴 하지만 라면도 먹고 산다.

북한에서 믹스커피가 한참 유행했는데, TV 드라마에서도 커피를 타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돈을 내면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준다고 한다. 라면 역시 일반 서민들이 먹어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은 된다고.

"저희 엄마는 농장 노동자들에게 밥을 대주는 식당을 했어요. 손님이나 노동자들에게 가끔 라면을 끓여주곤 했는데, 어른들이 라면을 먹고 국물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제가 늘 먹곤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여기 와서는 예전 그 라면 맛이 나지 않네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라면 맛이 그리워요."

A씨의 부모는 아직 북한에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 '남한'이라는 등지 밖으로 어린 자녀를 밀어보낸 부모의 마음을 A씨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훌륭하게 장성해 통일이 되는 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다.



<글. 기자희>



민주평통, 제16기 제3차 해외지역회의 개최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61개국 570여명 참여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통일부, 통일준비위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나간다면 풀뿌리 통일운동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은 후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



▲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연무관에서 해외지역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일본·중국·유럽·중동·아프리카 등 61개국 14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5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16기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연무관에서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시간을 갖고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통일운동이 국제사회와 세계 인류가 함께 하는 화합과 번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통일외교관’으로 부르며 “국내외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통일 환경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민주평통에서 진행한 초등학교 북한친구에게 편지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시은 양의 편지내용을 언급하며 “평화통일은 후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말했다.



“통일은 한민족이 안고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

9월 2일 아침. 오공태(일본), 이훈복(중국), 박덕(유럽) 부의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이번 해외지역회의가 자문위원들의 통일외지를 다지고, 민간통일외교 최선봉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정확히 알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 오공태 일본부의장



▲ 이훈복 중국부의장



▲ 박덕 유럽부의장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기초연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한 뒤 “통일은 우리 한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라며 이러한 통일을 이루려면 국제사회 지지와 북한주민들의 호응, 그리고 우리의 통일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많은 외침을 당했지만 통일대한민국은 다를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허브가 될 하나의, 평화의, 창조의 대륙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박찬봉 사무처장은 '2014년 업무보고'에서 통일준비위원회와의 역할 분담과 관련 "민주평통은 통일준비와 관련해 처음과 끝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평통이 선도적이고 실질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편지쓰기 대회 같은 각종 차세대 사업을 통해 통일미래세대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특강시간,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북한주민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건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라며 "통일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통일이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 '통일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영수 서강대 교수

강의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대화를 위해 청와대로 이동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독도와 뉴욕 유엔 본부 등에서 공연을 가진 가수 이승철 씨와 탈북청년합창단 위드유(with YOU)의 공연이 마련돼 있었다. 탈북청년합창단은 이승철 씨의 지휘로 통일의 염원을 담은 '그날에' 등의 통일노래를 합창해 대통령과 자문 위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 이승철과 탈북청년합창단 위드유 (with YOU)의 공연



윤병세 장관 “독일처럼 많은 통일외교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

해외지역회의 3일차, 지성호 NAUH대표의 '내가 겪은 북한' 증언에 이어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의 통일이 동북아, 그리고 유럽까지 포함한 새로운 경제협력 가능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작은 통일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평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어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통일환경 변화와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장관은 "독일의 경우 통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를 추구해왔고 20~30년 동안 많은 외교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며 우리도 통일을 위한 외교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시간, 탈북학생들로 구성된 와글와글합창단 공연과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의 문화특강이 있는 후 14개 지역협의회별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분임토의 시간에는 △민간 통일외교·공공외교 추진성과와 방향, △해외거주 탈북민의 정착 지원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국제 NGO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교류 추진방안 △재외동포 차세대대를 대상으로 한 역사·통일교육방향 등의 주제가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곧바로 분임토의결과 발표시간이 이어졌다.



지역협의회별 분임토의 결과 요약

일본

일본 동부협의회는 북한의 실상을 재일동포와 일본사회에 알리고자 북한이탈주민 강연회와 북한인권 사진전을 전개해왔으며, 일본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지원, 취직 및 주택알선,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부협의회는 재일동포사회의 통일실현은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하고 정상적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민단과 조총련간 대립을 완화하고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을 위해서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근기협의회는 차세대 동포, 그리고 뉴커머들이 사회화합과 한인사회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을 부모로 둔 더블루트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부협의회는 한일교류협력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하며, 일본내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탬 것을 약속했다.





중국

베이징협의회는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현지 주류인사 및 조선족 동포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저우협의회는 중국에 산재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활용해 차세대 역사·통일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칭다오협의회는 민간통일외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저명인사를 상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알리며,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홍보해 지지기반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상하이협의회는 생활 속에서 통일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나로부터의 작은 통일' 운동을 실시하며, 미래 통일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 대상 프로그램을 추진해 통일 열망을 고취시키고 아시아가 원하는 청소년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선양협의회는 통일외교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조선족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같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영국협의회는 영국 주류사회 내에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할 계획이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2세 통일교육을 위해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남유럽협의회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유럽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국가별 실정에 맞춰 현지 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북유럽협의회는 2세들이 올바른 역사관, 정체성, 통일관을 갖도록 돕고, 외국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이고 시각적으로 통일한국을 알려겠다고 밝혔다. 중동협의회는 해외파견 북한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른 해외 자문위원들도 북한근로자들의 인권감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협의회는 국제 NGO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이번 해외지역회의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현지 교민과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겠다고 밝혔다.







“거주국가와 전문분야는 달라도 통일 열망은 한마음”

3차 해외지역회의에서 만난 자문위원들은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만큼 통일을 보는 시각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각기 달랐다. 독일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알리는 전문의료인, 인구학적 관점에서 통일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영국 외환전문가, 남북간 스포츠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중동 자문위원,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고양시키고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바로알리는 학자, 5~6세 교포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주려는 일본 청년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문위원 5인을 만나보았다.

남북한주민, 서로 잦은 왕래 통해 문화쇼크 줄여야

북유럽협의회 안희숙 자문위원

1970년대 파독간호사로 마지막 기회의 영광을 안고 독일에 온 후 교육과 연수를 거쳐 전문의료인으로 활동해온 안희숙 자문위원(전 북유럽협의회 간사)은 현재 독일 베를린시립종합병원에서 수술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제14기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세 번째로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했다.



북유럽 통일골든벨 예선 호응 높아

올해 북유럽협의회에서 통일골든벨 예선을 했는데 처음에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통일골든벨을 개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호응이 높아졌고 특히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참여가 높았습니다. 또 얼마전 한국 ‘통일스피치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독일 탐방을 왔는데, 허연욱 대사관 공사겸 총영사와 민주평통 자문위원등 25명이 모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도 통일 독일을 직접 체험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겠지만, 우리 자문위원들도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느낀 것이 많았어요.

북한인권문제 해결 위해 독일도 한반도 통일 응원

독일은 한국의 분단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요. 독일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도 북한대사관 앞에서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자주 시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통일을 이루려면 민간인들이 움직여야 해요. 독일의 통일도 그렇지만, 이집트나 리비아의 독재도 민간을 통해서 무너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독일은 통일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식량이나 물품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인식시켜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 외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접촉할 수도 없고 이미 언어나 문화, 생활습관 등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독일에서도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화쇼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통일 전후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통일준비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통일은 한국경제 '제2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

영국협의회 배채환 부간사



올해 두 번째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한 배채환 자문위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인생의 선배님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협의회 부간사로 활동중인 배 위원장은 영국 자문위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회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저출산문제 극복해서 통일 비용 덜어야

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700년쯤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출산율이 매우 낮았던 프랑스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해 현재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관심거리인데요. 그 비용을 한 명이 부담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인구가 부담하는 편이 훨씬 가벼우니까요. 예를 들면, 남녀 구분 없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했을 때 육아담당자에게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이 사교육으로 덜 흘러가도록 하며, 다자녀 가정에게는 주택구입 시 모기지 및 세금관련 혜택 등을 준다면 고령화 저출산의 가속페달을 멈추고 인구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도 한국문화, 한국 통일에 관심 높아

영국에서는 월드컵 이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한국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미령 교수가 옥스퍼드대학에서 북한관련 토론회를 열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북한 인권을 다루었던 16기 한영 통일 포럼에서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현지인들이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배들의 노력과 성공으로 경제대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로서 그 과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방에 쓰는 예산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탈피해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포 5~6세에게 한국인의 정체성 심어주고 싶어

일본 근기협의회 나미화 자문위원

일본 근기협의회 나미화 자문위원은 제일 한국인 3세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청년회 효고현 지방본부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교포청년들을 위해 한글교실을 열고 한국역사나 문화 등을 가르친다. 대학 졸업 때까지 한국어를 전혀 모르다가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결심, 2년 동안 공부했으며 3개월간 한국에 와서 유학하기도 했다.



재일교포 5~6세에 한국어·한국문화 가르칠 것

현재 일본에는 재일교포 5세, 6세가 많은데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따로 배우지 않고 가정에서도 일본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요. 저도 대학교를 졸업한 후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가르치면서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보려고 해요. 2년에 한 번씩 민단에서 어린이 잼보리 행사를 개최하는데, 효고현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행사를 열었어요. 이 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다음에는 선배로 함께 참여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공부를 도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유학 후 북한인권문제에 관심 갖게 돼

남북한의 통일에 관해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들던 '통일의 의미'와 한국에서 배운 '통일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북한에 관한 뉴스를 다룰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지도자 관련 뉴스를 단순하게 보도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안보'와 '북한아이들의 인권' 등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을 봤어요. 그 이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사실 재일교포들은 통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본 내에는 현재 여러 교포 단체들이 있고 많이 분열돼 있는 양상인데, 통일이 되면 이들 단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북한 대학배구팀 남한으로 초청해 친선경기 하고파

중동협의회 오한남 부회장



오한남 부회장은 1991년 두바이 배구감독을 거쳐, 바레인 체육부 초청으로 현지에 정착한 후 배구 감독과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바레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배구연맹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남북한간 스포츠교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교류 통해 남북한 통일 앞당길 것

World-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바레인 지회장을 맡고 있어서 2008년경 베이징올림픽 때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도로도 울퉁불퉁하고 차도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언론에서 보면 평양시내는 너무 멀정한데, 다른 지역은 밤만 되면 불빛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걸 보고,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요.

내년에 광주에서 열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지난 8월에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학배구연맹에서 6개국 선수를 초청해 국제배구대회를 했어요. 그때 북한 대학팀 배구선수들도 초청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북한팀과 꼭 친선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것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미래 중동은 '기회의 땅' 될 것

바레인분회에서는 지난 6월에 연합해군사령관 취임식 차 바레인을 방문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현지 한인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상견학을 실시했어요. 문무대왕함 함장(김정현 대령)은 한인청소년들에게 애국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비디오 시청 및 함상 견학으로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날 취임한 조영주 사령관은 청해부대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삼호 주얼리호를 구출했을 때 부대장으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유럽이나 미국진출을 선호하는데, 앞으로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도전해 보세요. 이란이나 이라크도 언젠가는 안정이 될 거고, 머지않아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드라마가 아랍어로 번역되서 중동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해요. 길을 가다보면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도 건넬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높지요. 특히 중동지역 항공사에 한국승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중동은 미래에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 반대하지 않아, 그 실현은 우리 몫

중국 상해협의회 이국봉 자문위원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정치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국봉 교수는 한-중 정치사상 및 문화 비교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동(同) 대학 리더십 국제연구센터 부비서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의 통일-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한중평화포럼(7월 30일)과 같은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측 학자들을 섭외, 관리, 조직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독립운동 역사현장 방문 후 해외지역회의 참석, 감회 새로워

상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가 있었던 곳이에요. 상해임시정부와 흥커우공원(윤봉길의사 도시락폭탄 투척 장소)을 방문한 뒤에 해외지역회의 참석을 위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해외 각지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면서, '애국정신'을 살릴 수 있는 실천방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왔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은 큰 각도에서 보면 '통일'과도 연결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유로운 공간을 우리 스스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요. 교과서 속의 임정이나 흥커우공원과 같은 '과거'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으로 살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과거'이지만, '현재' 우리 통일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며, '미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통일', 생활밀착형 통일문화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 넘어 '한반도의 기적' 만들어야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통일'이라는 말을 써요. 중국은 G2로 부상했지만 자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변국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해요. 전쟁이나 돌발 상황으로 인해 힘을 쏟는 것을 꺼려하는 거지요. 따라서 한반도통일이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통일되지 않고 지금 같은 상태가 유지만 되더라도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해교통대학의 '교통'은 'transportation'이 아닌 '소통'을 의미해요. 주역에 보면 하늘과 땅, 즉 천지가 '교(交)'하면 만물이 '통(通)'한다는 뜻에서 나온 거지요. 21세기는 아시아시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천지' 대신 '한-중'으로 바꾸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교류하면 만물이 통한다'로 말할 수 있어요.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라는 장자의 말이 있는데, 이는 '길이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 보니 길이 된다'는 뜻이지요. 청소년들은 젊기에 도전할 수 있어요. 길을 한 번 만들어가 보세요. 함께 걷다 보면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나의 세상이자, 우리들의 세상이 될 겁니다.

<글. 기자회견 / 사진. 나병필>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에게 가슴 뛰는 통일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마련된 청춘 토크 콘서트 '통일드림'이 9월 2일과 16일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녹화를 마쳤다. 첫 번째 방송녹화 날,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 마련된 콘서트 현장을 찾았다.



9월 2일 1회 '문화, 통일을 만나다' 편 녹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국민대통합위원회, EBS가 공동주최하는 청춘 토크 콘서트 '통일드림' 1회 '문화, 통일을 만나다'편 녹화가 있던 날, 한경직기념관의 넓은 홀은 가족단위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이 콘서트에는 그룹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이 '통일멘토'로 참석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수 박완규와 걸 그룹 포미닛의 공연도 예정돼 있어 기대감이 더욱 높았다.



통일드림 콘서트 녹화현장에서 박찬봉 사무처장이 방청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

방송인 김현욱이 MC로 등장하고 뒤이어 개그우먼 장효인과 탈북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 탈북 방송인 김아라, 무연고 탈북청소년 공동체 '가족'의 총각아빠 김태훈, 가수 김태원 등이 무대위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객에서 큰 환호성이 들렸다.



오프닝멘트에서 개그우먼 장효인은 “우리는 이미 분단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해 젊은 세대들이 남북분단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히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은 토크쇼가 진행될수록 점점 진지함으로 바뀌어갔고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이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으로 이어졌다. 김아라와 박성진 씨가 북한에서의 경험담, 북한주민들의 생각 등을 자세하고 실감나게 들려줘 방청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찬봉 사무처장·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내빈들 ▲▶



남과 북은 닮아 있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가수 박완규는 '사랑하기 전에는'이라는 곡으로 탈북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과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였고 네버엔딩스토리 등의 곡을 열창했다. 그는 “북녘에 있는 형제분들도 남한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문화는 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등장한 포미닛은 “통일을 주제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이 프로그램이 장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크는 자연스럽게 '남과북은 닮아있다'는 주제로 흘렀다. 부모의 사랑, 남존여비, 신명나는 한민족 등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눴고 패널들은 '우리랑 똑같네' '떨어져 있지만 닮아있다'며 북한과 남한이 같은 DNA를 가진 민족임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통일을 향한 결정적 1분'에서는 가수 김태원이 스킵피언스가 독일에서 베를린장벽에서 공연했듯 우리도 통일이 되면 DMZ에서 부활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총각아빠 김태훈은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우리 집 막내가 엄마아빠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을 등클하게 했다.



이날 녹화가 끝난 뒤 한 방청객은 "남편과 자녀 셋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콘서트를 보니 문화적으로 정말 북한과 가까워졌구나, 통일이 이미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춘토크 콘서트 '통일드림'은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9.30), 부산(10.11)에서 있을 예정이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의 '통일콘서트 체험기'



관악구협의회 윤순덕 자문위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숙소에 체류중인 말레이시아 국비 유학생 24명을 데리고 녹화장을 찾았다. 이 학생들은 자국에서 한국어 테스트를 거쳐 선발됐으며, 올해 서울대 어학연수를 마친 뒤 4년간 국내 각 대학에 배치돼 대학원 공부를 할 계획이다.

윤순덕 자문위원은 우리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데리고 왔는데 "콘서트의 짜임새가 괜찮다"며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창한 한국어 솜씨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학생 라이마는 "남북한이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대학생 외교대사들, 글로벌 통일홍보 맹활약!”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임명장 수여식 및 2기 발대식 개최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대사 활동을 통해 사람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뿌듯했던 것은 제가 교실에 붙여놓은 '통일 세계지도'를 보고 통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였어요. 잠깐이나마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62명 1기 통일공공외교대사로 임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9월 20일(토)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사이버외교사 절단 반크와 함께 '제1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임명장 수여식'과 '제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과 반크는 8월 5일 '제1기 발대식'에 참여한 후 주변의 외국인 및 한국인 친구, 펜팔친구 등에게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한 250명의 학생 중 우수 활동자 62명을 '글로벌 통일공공외교대사'로 공식 임명했다.

박찬봉 민주평화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독일의 경우 저먼케스천(저먼프라블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공공통일외교대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며 1기 통일공공외교대사들의 홍보 노력을 칭찬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와 만주벌판을 넘어 당당한 세계의 주역으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은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수사례 발표 “통일한반도 시대의 비전 홍보했어요!”

이어 새로 활동을 시작할 2기 후배들을 위해 1기 통일공공외교대사 선배 두 명이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김다영(서울시립대) 학생은 어릴적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북한에서 온 아이와 짝공을 했던 경험,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갔을 때 외국인 친구들이 ‘노스’인지 ‘사우스’인지 자꾸 질문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통일에 대해 바로 알리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다영 학생

특히 재학중인 학교의 국제대학원 라운지에 가서 외국학생들과 인터뷰하며 통일비전을 홍보했다며 개개인에 맞는 활동방법을 찾아서 활동하라고 조언했다.



▲ 김예나 학생

김예나(고려대) 학생은 평소 북한에 관심이 많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도 하고 북한인권강연도 찾아다니던 중에 자연스럽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예나는 블로그 등에 스토리텔링 미션을 수행할 때 유튜브에 활용 가능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글만 쓰는 것보다는 통일관련 홍보영상을 활용하고, 수치나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면 보다 전문가다운, 대사다운 포스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규 외국인 입학생 도우미 봉사동아리에 지원해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통일한국에 대해 알렸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 1기 통일공공대사 활동사진

1기 통일외교공공대사! "앞으로 더 열심히 할래요"

고제경·권혜림(용인홍천고) = 저(제경)는 역사동아리 아이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애(혜림)는 언론보도 내용중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으면 꼭 읽어가면서 활동을 했어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홍보할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외국인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갈 건데, 그때는 통일을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훈(동국대 대학원) = 16기 민주평통 청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행사도 참여하고 웹진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학부 때부터 통일기자단 등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서 폭넓게 배울 수 있었고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이번 여름,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신청을 했고, 한반도통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중국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비록 공식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사로써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기 글로벌공공외교대사를 향한 힘찬 발걸음 시작

이어진 제2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발대식 행사에는 120여 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여해 통일 한국의 꿈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박기태 단장은 학생들에게 "200개 나라 중 한 개 국가를 정해서 그 나라 정서에 맞게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통일 홍보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통일외교대사로서 북한을 알고, 북한주민이 통일을 원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 특강은 북한 약사출신의 이해경 (사)새삼 대표가 맡았다. 이해경 대표는 2002년 탈북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자본이 합쳐지면 국가 경쟁력이 강해진다고 청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이해경 (사)새삼 대표

정해진 순서가 모두 끝나자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통일대사로서의 활동 각오와 포부를 적은 꿈 비행기를 다같이 날리며 통일이 가져올 세계의 평화와 안정,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기여 등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기 활동을 시작하며! "우리들의 활동 지켜봐주세요!"

정주아(광운대) = 국제협력과라는 전공도 전공이지만 아버지가 북한관련 사업을 하셔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중국인들에게 통일을 알리고, 통일 이후에는 중국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싶어요. 타 기관에서 대학생기자로 일하면서 북한친구들을 알게 됐는데 저희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번 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이 아닌, 같은 민족이라는 것도 인식시켜주고 싶어요.



김신혁(한겨레고) = 북한에서 왔고 외부학교나 기관 등에서 통일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통일에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참여하게 됐어요. 수학교사가 꿈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고향 친구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오늘 김영수 교수님의 강의를 재미있었어요. 통일되면 군복무를 몇년 할 것인가, 태극기 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어요.

박경태(익산 어양중) & 박대현(공동초) 형제 = 평소 통일문제에 관심도 있고 친구 한 명도 데려올 수 있다고 해서 동생을 데려왔어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두려움 같은 것도 사라지잖아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 왕따시키지 말고 도와주고 배려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경태). 북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대현).





김하람(승실대) = 사촌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인들이 자꾸 북한에서 왔는지 남한에서 왔는지 물어본대요. 그런데 조부모님은 북한사람이고 부모님은 남한사람이다보니 그런 질문이 싫고, 원래 한국은 하나였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졸업 후 해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이 되거나 국제 NGO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동아시아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



▲ 경기 광주시협의회



▲ 경북 영주시협의회

경기 광주시협의회는 8월 30일 관내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 경찰서 관계관, 협약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2014 북한이탈주민 통일현장견학 및 망향제를 개최했다. 경북 영주시협의회는 8월 31일 요선재(진통향토음식체험관)에서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협력·교류 동호회 학생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명절 음식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 대구 달서구 협의회



▲ 전북 정읍시협의회



▲ 광산구협의회

대구 달서구 협의회는 9월 4일 대구 웨딩알리앙스에서 대구, 경산지역 북한이탈주민 300여 명, 박대훈 구청장, 자문위원 등 360여 명과 함께 '2014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큰 잔치'를 열었다. 같은 날 전북 정읍시협의회는 협의회사무실에서 멘토-멘티, 정읍경찰 관계자 등과 함께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한가위 마음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광주 광산구협의회는 9월 3일 광산구민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추석명절 행사를 열었으며, 충남 보령시협의회는 8월 30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북한이탈여성과 함께 '북한이탈여성과 함께하는 통일문화 예절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 충남 보령시협의회



▲ 서울 금천구협의회



▲ 경기 안성시협의회



▲ 대구 수성구협의회

▼ 전북 전주시협의회



서울 금천구협의회는 8월 29일 관악농협 앞 광장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과 함께 '송편 빚기 행사'를 열었다. 경기 안성시협의회는 9월 1일 안성경찰서와 연계해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도 9월 4일 두산문화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송편 빚기 행사를 가졌다. 또한 전북 전주시협의회는 9월 6일 중앙시장 태평오길에서 멘토-멘티가 만나 추석 송편을 만들면서 정담을 나눴다.



▲ 경남 통영시협의회

▼ 전남 무안군협의회



▲ 경기 여주시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 ▶

경남 통영시협의회는 8월 26일 통영시청 제2청사에서 통영시, 한국가스공사 통영시 기지본부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52 세대에게 88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했으며, 전남 무안군협의회는 8월 28일 남악출장소에서 무안경찰서 보안계 및 자문 위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는 9월 3일 관내거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과일 및 선물세트를 마련해 전달했고, 전북 장수군협의회는 9월 3일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을 방문해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했으며, 경기 가평군협의회는 9월 5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한 뒤 가평사랑상품권, 송편을 전달했다.



◀ 경기 가평군협의회



▲ 서울 중랑구협의회



▲ 경북 안동시협의회

서울 중랑구협의회는 8월 30일 멘토 자문위원, 멘티 등이 함께 강원도 인제지역으로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통일맞이 워크숍'을 다녀왔다. 경북 안동시협의회는 이보다 앞선 8월 26~27일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여성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맺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 경기 김포시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서울 양천구협의회



▲ 제주 제주시협의회



▲ 서울 구로구협의회

경기 김포시협의회는 8월 29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알타리무를 파종했으며,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8월 30일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어깨동무하기 멘토 자문위원, 멘티학생들과 함께 '경남FC/ 수원삼성 축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서울 양천구협의회는 9월 8~10일까지 한사랑교회에서 양천구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는 9월 13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민대통합 평화통일 기원의 일환으로 자문위원, 관내 거주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구로구협의회는 9월 12일 충남 공주시 정인면 장원리 일대에서 서울구로경찰서와 공동 주최로 북한이탈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한가득 밤줍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 서울 중랑구협의회



▲ 경북 안동시협의회

서울 중랑구협의회는 8월 30일 멘토 자문위원, 멘티 등이 함께 강원도 인제지역으로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통일맞이 워크숍'을 다녀왔다. 경북 안동시협의회는 이보다 앞선 8월 26~27일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여성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맺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 경기 김포시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서울 양천구협의회



▲ 제주 제주시협의회



▲ 서울 구로구협의회

경기 김포시협의회는 8월 29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알타리무를 파종했으며,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8월 30일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어깨동무하기 멘토 자문위원, 멘티학생들과 함께 '경남FC/ 수원삼성 축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서울 양천구협의회는 9월 8~10일까지 한사랑교회에서 양천구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는 9월 13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민대통합 평화통일 기원의 일환으로 자문위원, 관내 거주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구로구협의회는 9월 12일 충남 공주시 정인면 장원리 일대에서 서울구로경찰서와 공동 주최로 북한이탈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한가득 밤줍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충남 태안군협의회



▲ 경기 하남시협의회

▼ 경기 양평군협의회



충남 태안군협의회는 8월 28일 남면 삼성초등학교에서 학생·교사와 함께 자문위원과 함께 안보체험 견학을 실시했으며, 경기 하남시협의회는 8월 29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8회 통일신문 만들기' 공모전 입상 학생 및 가족들과 함께 통일안보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경기 양평군협의회는 8월 29일 청운중학교에서 김문석 통일강사와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강연회



▲ 부산 동구협의회



▲ 경기 안양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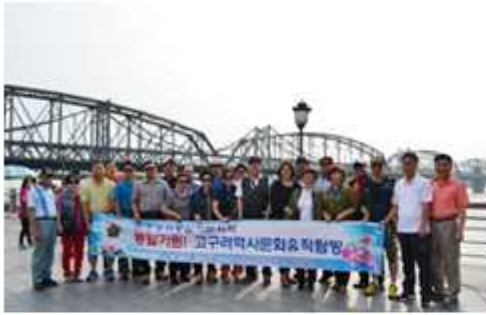
▲ 강원 양양군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는 8월 26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지역주민 230여 명과 함께 '2014년 통일시대시민교실'을 열었으며, 경기 안양시협의회는 9월 3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및 시민 200여 명과 함께 '2014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또한 강원 양양군협의회는 9월 15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양양군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실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캐나다 토론토협의회는 9월 2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25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승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위정책연구원(전 합참의장)을 초청해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견학 · 탐방



▲ 경북 상주시협의회



▲ 전북 부안군협의회



▲ 경기 화성시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는 8월 21~25일 통일기원 고구려 역사유적 및 백두산을 다녀왔으며, 전북 부안군협의회는 8월 30일 변산 송포항 광장에서 자문위원 및 통일무지개회원과 함께 '통일염원 마실길 걷기대회'를 열었다. 또한 경기 화성시협의회는 9월 2일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으며, 경기 포천시협의회는 9월 2일 울릉군 독도를 직접 방문해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 전남 강진군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전남 강진군협의회는 8월 25일 강진군청 부속실에서 강진원 군수(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했으며, 부산 서구협의회 8월 29일 서대3동 시장 및 주변일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부산 중구협의회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 제주 지역회의

같은 날 부산 중구협의회는 중구노인복지관을 통하여 주위에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추천받아,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부산 부산진구협의회는 9월 3일 (사)단미 교육장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내 독거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온정나눔행사'를 개최했으며, 제주 지역회의는 9월 6일 지역회의의 사무실에서 제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청소년과 지역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협의회



그밖에 경기 안산시협의회는 9월 13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일반시민 등 1,600여명과 함께 '안산 시민을 위한 평화통일염원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한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른 평야에 선다. 노랗게 머리맡을 물들인 채 고개를 숙인 벼이삭 너머, 저 멀리 하늘과 땅이 맞닿는다. 한반도 땅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 내는 곳. 북쪽의 만경강과 남쪽의 동진강 사이 풍요로운 땅, 김제만경을 품은 이곳이 김제다.



황토 땅에 다독여 문은 그리운 이름 하나, '황토정보화마을'

더 없이 평범한 김제의 시골길을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고향이다. 경춘 키가 자랐어도 '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워'지는 고향.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나고, 동네 어귀까지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던. 추억 어린 그 곳. 굳이 이곳 태생이 아니어도, 김제는 다 큰 어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고향땅과 참 많이 닮았다. 그래서였을까. 한국전쟁당시 황해도 등 이북 지역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이 하나 둘, 이 땅 어디쯤 터를 마련해 살기 시작한 이유 말이다.





김제시에서 북동쪽으로 18km쯤 달리면 닿는 황토정보화마을은 김제시의 대표적인 실향민 마을이다. 또한 2011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경상북도 상주시 봉상마을과 지역 특산물을 교환하며 등서화합 한마당잔치를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남으로, 남으로 내려 온 피난민들은 조용한 야산 한 자락에 웅기종기 터를 잡고 논과 밭을 가꿨다. 다행히 비옥한 황토는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질 좋은 농산물을 선물로 주었고 그렇게 고향땅을 떠나 60여 년이 훌쩍 넘었다.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실향민은 약 80여 명. 16, 17살에 피난을 온 흥안의 청년들은 이제 흰머리가 성성해졌다. 마을 한쪽 망향탑을 세우고 고향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 이 중에 벌써 세상을 떠난 이들도 여럿이다. 정 붙이고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 했던가. 이제는 고향생각보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식 걱정이 더 크지만 아직도 겨울이면 마을회관에 모여 황해도식 만두를 빚어 나눠 먹곤 한다고. 마을이장인 이철웅 씨는 황해도 송화군 출신의 아버지가 9살 때 피난을 와 이곳에 터를 잡은 경우다. 고향을 그리워할 새 없이 그저 주린 배를 채우기에 바빴던 지난 세월을 덩뎡히 회고하는 어르신들. 하지만 아직도 이북에서 내려 온 고향동무들을 만날 때면 열여섯. 그 꽃 같았던 시절의 얼굴이 되곤 한다. 어디 그림다 말하지 않는다 한들 그림지 않을 리 있을까. 그때 그 시절, 꽃 피고 새 울던 내 고향이 말이다.



느리고, 바르고, 기쁘게 걷는 길, '김제 아름다운 순례길'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느리게. 처음 길에 나선 이유나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걸을수록 말수는 줄어 들고, 생각은 많아진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 다다를 쫓, 자신



을 괴롭혀 왔던 수많은 생각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도, 누구하나 현명한 대답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음에도 그저 그 길을 오롯이 걷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깨달고 치유 받는다. 아마도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시작했으리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길에는 흙과 자갈, 들꽃과 먼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람과 햇살, 눈물과 웃음, 그리고 한숨이 섞인 이야기가 차곡이 쌓여 길이 된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도보 길인 '아름다운 순례길' 역시 마찬가지다. '느리고, 바르고, 기쁘게'의 줄임말인 달팽이 '느바기'의 안내에 따라 전주, 익산, 김제, 완제를 잇는 길은 꼬박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완주할 수 있는데, 그중 김제 금산사에서 금산교회와 원평교당을 지나 수류성당에 이르는 14.5km 구간은 이 도보 길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개신교와 원불교,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 유적은 물론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민족 저항 운동의 역사적 흔적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1400년 시간 속을 걷다, '금산사'

김제 순례길의 시작은 1400여 년 역사를 간직한 불교사찰, 금산사로부터 시작된다. 금산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모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빼어난 자연풍광을 자랑하는데 특히 가을날의 운치를 만끽하기에 좋다.



평탄하게 이어진 길을 차분히 걷다보면 사찰의 관문인 흥예문을 시작으로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 보제루 등을 차례로 지나, 드디어 사찰 경내에 들어서게 된다. 백제시대에 지어져, 후백제의 견훤이 유폐되었던 곳. 신라의 통일 이후 중창되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들이 백성을 지켜냈고, 그 보복으로 정유재란 당시 불에 탔던, 사찰은 그 존재 자체로 역사가 된다. 그리고 긴 역사를 증명하듯 무려 11개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물처럼 품고 있다.

그중 가장 장엄한 볼거리가 바로 미륵전이다. 겉으로는 나무로 지어진 3층 건물로 보이지만 안쪽으로는 통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미륵불이 모여져 있다. 사찰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데다 볼거리가 많아 머무는 동안 지루할 틈 없이 시간이 흐른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바삐 걸음을 옮길 필요는 없다. '걷는 사람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 거처를 정한다' 하지 않던가. 그저 제 마음이 내키는 만큼 머물러, 쉬었다 또 다시 걸어가면 된다.



세월을 견뎌 온 강건함, '금산교회'

그래도 기왕 내딛은 걸은 순례길을 조금 더 걷고 싶다면 가을 햇살 아래 호수처럼 곱게 반짝이는 금평저수지를 옆에 끼고 금산교회 방향으로 향하면 된다. 낡은 나무 종탑이 가장 먼저 반기는 금산교회는 1908년 터를 잡은 후 100여 년이 넘는 동안 자리를 지킨 국내 단 두 개 남은 'ㄱ'자형 한옥교회다. 남녀가 유별했던 시절, 남성과 여성의 접촉을 막기 위해 'ㄱ'자 형으로 지어졌는데 천정의 대들보에는 각각 한자와 한글로 성경 구절이 적혀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심지어 남자목사와 여신도들 사이, 시야를 막기 위해 쳤던 휘장까지도 그 시절의 것이다) 한옥 교회는 방문자의 조용한 경외를 자아내게 한다. 불쑥 교회 안으로 들어선다 한들 막는 이 하나 없다. 오랫동안 그래왔듯이 누구든 들어와 머물다 갈 수 있는 이 소박한 교회에는 긴 세월을 버텨 온 강건함이 남아있다.



쌍룡이 지키고 있는, '벽골제'

김제까지 왔으니 하늘과 땅이 일직선으로 맞닿는 지평선은 봐야하지 않겠나 싶겠지만 일부러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걷다보면 시선이 닿는 어느 한 곳 쯤에서는 꼭 지평선을 만나게 될테니 말이다. 그래도 옥심내 제대로 김제평야를 보



고 싶다면 벽골제 방향으로 향하면 된다. 매년 가을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벽골제 인근에는 농경문화를 테마로 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벽골제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고대저수지다. 백제 비류왕 27년에 처음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이 훼손됐으나, 고대 농경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보존되고 있다. 특히 벽골제를 비롯해 인근의 탁 트인 평야를 보고 싶다면 옥상전망대를 추천한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거대 규모의 청룡과 흑룡, 쌍룡이 버티고 있는 평야를 보고 있자니 감탄과 함께 든든한 기분마저 든다.



정갈한 사찰이 낙조에 물드는 시간, '망해사'

어느덧 물그스름한 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망해사로 간다. 만경강 하류와 서해에 접해있는 이 아담한 사찰은 늘 정갈한 모양새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화려한 볼거리도 압도적인 규모도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번 발길이 멈추면 쉬이 자리를 옮길 수가 없는 특별함이 있다.



제법 서늘한 기운을 머금은 가을바람이 불어 고개를 들자, 새만금 방조제가 수평선 끝자락에 걸쳐있는 서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낙조가 시작된다. 전국에서도 한 손에 꼽힌다는 이 작은 사찰의 낙조는 기이할 만큼 조용하고 그래서 경외롭다.

아담한 사찰만 구경하기에 서운타 싶다면 사찰 뒤편으로 가보자. 망해사 뒤쪽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바다와 평야를 모두 관람할 수 있어 은근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새만금 바람길'의 일부로 1km 남짓만 걸으면 심포항이라는 작은 포구도 갈 수 있다. 또한 망해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진봉산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서해와 김제평야, 그리고 김제시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소박하고 평범한 집 밥이 그리울 때



하루 종일 황금빛 들녘, 이곳저것을 걷다보니 '밥'이 먹고 싶어졌다. 그것도 제대로 차려 낸 한정식이 아닌 소박한 집 밥이. 다행히 벽골제 바로 앞에는 주막이나 밥집이 여럿 자리해 어렵지 않게 밥상을 받아들 수 있다. 지평선축제기간이 아니어도 상시 운영 중인 가게 중 한 곳을 차지하고 앉아 우거지해장국에 밥 한 그릇을 말아 게 눈 감추듯 해치운다. 때론 어떤 값비싼 상차림보다 매일 먹는 소박한 밥상이 그리운 법이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주홍빛의 감경단은 씹는 맛이 부드러워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방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다. 감은 예부터 음주 뒤 숙취에 특효가 있고, 감기 예방과 이뇨작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요리재료

참쌀가루 300g, 딸기가루 5g, 치자 3개, 소금 약간
속재료 단감 1개, 꿀 약간



요리방법



1 치자는 냄비에 삶아 치자물을 우려낸다.



2 단감은 잘게 다져 꿀과 버무려 속을 준비한다.



3 찹쌀가루에 밀가루와 소금을 약간 넣고 치자물을 넣은 다음 익반죽한다.

4 한 덩어리로 뭉쳐진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어 둥글게 빚은 후 속을 넣고 동그란 모양을 완성한다.



5 완성된 경단을 끓는 물에 삶아 내어 찬물에 두 번 식힌다.



6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보기 좋게 그릇에 담아낸다.

요리연구가 나유신

북에서 언제나 귀했던 과일, **감**

북한에서는 감이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았을 때는 가끔 곶감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이것도 흔치않아 일반 서민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다. 감은 함경남도의 일부지역과 강원도(북한)에서 나는 특산식품이며, 감을 이용해 감죽, 감떡, 감경단 등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안녕? 나는 남한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야. 오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북한 친구들에게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려고 해. 남한 사회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벌써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인지 요즘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가에도 북한출신 대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기초학력이 부족했고, 낯선 사회생활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 북한출신 대학생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고 싶어. 그것은 바로 요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에 꼭 참가해 보라는 거야. 환경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자단', '홍보대사', '서포터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대학생 활동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어. 나 역시 지금은 대학원생이지만 학부 시절에 기자단, 홍보대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했었어.

이런 활동에 참가하면,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제품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등의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외활동의 특성상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게 돼. 탈북학생들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만 무엇보다도 낯선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텐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테니 무척 유용하겠지.



얼마 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학생들 70여 명을 대상으로 dmz 등 남한 북반부를 탐방하는 국토 탐험대를 모집하기도 했는데, 이런 활동도 대외활동의 종류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지.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 기사 한 편 당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7만 원까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할 여유가 없는 탈북 친구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라고. 언제든지 환영이네!”



1. SNS를 활용!

남한에 왔는데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눈꼽만큼도 안 보인다', '많이 소극적이다' 하는 친구들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 카카오톡이나 밴드, 페이스북 등의 사회 관계망)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남한 친구들은 SNS에 빠져있어요. 1초라도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하루 종일 SNS를 보고 있어요. 먼저 자신의 생활을 올리기가 어색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상들을 먼저 보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차차 익숙해지면 자신의 관심사나 일상 글들을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차츰 공감하게 되면 친구들도 점점 붙어오고 인맥도 쌓이게 되어서 즐거운 생활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SNS라는 인터넷에 갇히면 곤란해요. 그것으로 무서움을 없애고 점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2. 봉사활동을 시작!



무일푼이라서 짜증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보람되고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큰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분명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벽화봉사라고 있는데, 이건 단합해서 함께하는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봉사활동이에요. 서로서로 힘을 합쳐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 분명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벽화에 그림을 그리면서 쉬는 시간에 먹는 간식도 꿀맛이랍니다. 저는 고구마 캐기 봉사활동으로 정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스케일이 크지 않아도 이렇게 소소한 봉사활동 등으로 남한의 문화와 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3. 많은 것을 맛보기!



같은 음식인데 다른 맛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남한에서도 다른 맛이 많아요. 어느 지역을 가면 짜고 어느 지역을 가면 간이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아직 다른 지역 음식을 많이 맛보지 못했는데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맛보다보면 그 중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경험이 얼마나 재미있는 추억이 될지! 음식들을 만나면서 남한의 여러 지역도 여행하고 풍경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으니까요.

4. 두려움을 없애기!



이건 정말 북한에서 온 친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투가 조금 다르고 단어 사용이 달라서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점점 모든 것이 늘어나니까요. 두려움은 당연해요. 저도 두려운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점점 남한 언어가 늘어나고 행동에 적응하려면 도전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파이팅하세요!

5. 낯이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남한 사람들은 항상 경쟁하기 때문에 처음엔 경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서로 차차 대화하다보면 '아 괜찮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다 친구를 사겼는 걸요. 먼저 다가가도 괜찮아요. 처음에 경계 할 수 있어도 나중에 친구들이 정말로 괜찮다는 것을 느끼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주눅들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죠. 모든 것은 용기로부터 나오는 거랍니다!



친구, 미디어, 스마트폰과 친해지세요!



글. 허도준

개인적으로 북한친구들이 한국사회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남한친구만들기,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이다.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친구를 사귀는 것인데 일단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의 생각,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회에 적응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민거리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배려심 많은 남한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마치 외국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남한친구들을 사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 활동을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도 가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등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악기도 다뤄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가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두 번째는 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것이다. TV나 영화를 보면서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최근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유행하는 것을 자주 접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쌓이기 때문에 남한친구들과 이야깃거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게임, 친구와의 연락(카카오톡, 라인) 등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단 친구와 연락도 자주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남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북한에서 온 친구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북한친구가 생긴다면 가장 같이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다. 아마 북한에도 휴양지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휴양을 못해보았을 것 같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같이 해보면서 올레길도 걸어보고 여러 명소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

오늘은 내가 '통일레시피' 요리사!



그동안 웹진에 소개되지 않은
북한 음식을 만들어,
그 레시피를 소개해주세요!
조리방법과 조리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베스트를 선정하여
푸짐한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2014.09.30 ~ 2014.10.22

응모방법 한글파일에 조리방법과 조리사진을 정리하여 파일첨부로 응모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최우수 1명 20만원 상품권 / 우수 2명 5만원 상품권

파일첨부
응모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통일의를 별을 찾아라!

웹진 기사 곳곳에
총 3개의 <통일의를 별>이 숨어있어요~
통일의를 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찾았다'는
문구가 뜰거예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별의 위치를 찾으셨다면,
아래 비밀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별을 찾으러 GO GO!!

응모기간 2014.09.30 ~ 2014.10.22

응모방법

1. 기사를 읽고 별을 찾아 별에 마우스를 올리면 '찾았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2. 총 3개의 별을 찾은 후, 별을 클릭하면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3. 아래에 비밀댓글로 별의 위치를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20명 **시상내역** 스타벅스 카페라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북한음식 자랑하기'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ecreamjht@naver.com	안현숙
2	**eothakd@naver.com	강혁준
3	**us0228@naver.com	진광일



'통일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yloveyk200@naver.com	김윤경
2	**nchuha@naver.com	구름빵
3	**ans1@gmail.com	믹서
4	**l2mom@hanmail.net	스패로우
5	**gel79love@nate.com	사랑나누미
6	**ho81@naver.com	원석군
7	**llojjeong@naver.com	꼬마호두
8	**shan1046@naver.com	비오는아침
9	**srlal2@naver.com	부천교요
10	**a7297@hanmail.net	통통통
11	**jitongs@naver.com	Kinema
12	**aya333@naver.com	akal
13	**t89578957@naver.com	최종합격입니다

14	**mpue1@hanmail.net	왕언니
15	**onharu721@naver.com	라온하루
16	**ot2114@naver.com	riot2114
17	**ddhr59@naver.com	문양옥
18	**qc100489@naver.com	한여름밤의밥
19	**nedickta@hanmail.net	베네딕따
20	**tistlyj@hanmail.net	예술장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e6956@hanmail.net	010 - **** - 6161
2	**66wlgml@naver.com	010 - **** - 1824
3	**k010@naver.com	010 - **** - 8110
4	**ster@naver.com	010 - **** - 4850
5	**mpue1@hanmail.net	010 - **** - 3661
6	**japp@nate.com	010 - **** - 0496
7	**oneahn@naver.com	010 - **** - 2441
8	**rang5498@naver.com	010 - **** - 3215
9	**1eal@naver.com	010 - **** - 0537
10	**jin449@naver.com	010 - **** - 1176
11	**rect0328@korea.com	010 - **** - 0328
12	**semtkfkd@nate.com	010 - **** - 0957
13	**ngsfe@hanmail.net	010 - **** - 9358
14	**mun6366@naver.com	010 - **** - 6366
15	**awoohq@hanmail.net	010 - **** - 9988
16	**ya89@nate.com	010 - **** - 2373
17	**dfel@naver.com	010 - **** - 2342
18	**akeka0001@naver.com	010 - **** - 0925
19	**neskyangel@hanmail.net	010 - **** - 0482
20	**n7297@naver.com	010 - **** - 7297
21	**sporter@hanmail.net	010 - **** - 1778
22	**teto1030@hanmail.net	010 - **** - 7344

23	**x0228@gmail.com	018 - *** - 3883
24	**ot2114@naver.com	010 - *** - 2114
25	**sakf3@naver.com	010 - **** - 1786
26	**jigae007@naver.com	010 - **** - 1734
27	**nmodel@naver.com	010 - **** - 5871
28	**at4773@naver.com	010 - **** - 0915
29	**dzzinog@naver.com	010 - **** - 4925
30	**er83@hanmail.net	010 - **** - 9821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